

###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재선임



경인일보는 12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제 7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송광석 현 사장을 재선임 했다. 상임이사인 김은환 인천본사 사장과 이강범 상무이사도 재선임됐다. 또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과 허상준 KD운송그룹 사장이 비상임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송광석 사장은 1980년 경인일보에 입사, 논설실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양세열기자 hot@



### 오기만 호남미래포럼 광주전남본부장 위촉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최근 오기만(가운데) 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총장을 포럼 광주전남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오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포럼관련 업무 및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호남미래포럼은 또 임원진을 개편해 그동안 상임 운영위원을 맡아왔던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공동대표로, 김재철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문병호 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를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조용범)이 최근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로 국제·국내 의료기관 재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조선대 의과대 의사가운 착의식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학장 최상준)은 최근 의사가운을 처음으로 입는 순간을 기념하는 2015학년도 'white coat ceremony' 및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가졌다. (조선대 제공)

# “한-러 교류 가교역 고려인이 제격이죠”

## 고려인센터 한글 강사 우즈벡 고려인 김 엘레나씨

### 고려인 러시아어 능통 경제·문화 교류 활용을 러시아어 강좌 개설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519-4번지 광주고려인센터 사무실. 10평 남짓한 공간에 30여 명이 모여앉아 서투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어 연습에 열심이다. 40대 남성이 '학생'이란 단어를 읽지 못해 절절매자 그 옆에 있던 20대 동료가 살짝 힌트를 준다. 잠시 후 '어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그가 '어보'라고 읽자 교실은 이내 웃음바다가 된다. 고려인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김 엘레나(여·32)씨는 실수한 학생에게 다가가 '어부'와 '어보'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그녀는 “한글에 서툰 고려인에게 어부는 낯설지만 여보라는 단어는 친숙하기 때문에 학생이 착각한 것 같다”며 “한글을 새롭게 배우는 이들이 실수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고려인'이란 뿌리를 찾아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왔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동유럽까지 알려진 한류 덕분에 1년간 유학생

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2014년 7월 고향을 떠나 다시 한국을 찾게 됐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가정환경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로 대학까지 졸업했다. 이후 대학 강사로 사회에 진출했지만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화로 30만 원 안팎인 월급만으로는 저축은 커녕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친오빠가 있었기에 광주행을 택했다. 인터뷰 내내 한국과 광주 생활을 만족한다고 말한 그녀는 현재 병원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하고 있다. 낯선 의료 용어 때문에 매번 애를 먹으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추위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찾았고, 현재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설명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의 삶은 열악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경찰이나 은행원 등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특별한 인맥'이 필수라는 것. 오모까지 남다른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취업 기회를 얻기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점점 더 한국을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언어와 러시아 언어는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1991년 8월 31일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 언



지난 15일 광주고려인센터에서 진행된 한글 수업시간. 김 엘레나 씨는 '이예오'와 '에오' 차이를 묻는 질문에 고려인들이 한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려인 대부분이 러시아 언어를 구사한다. 그녀는 광주에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규모가 커지고 한류가 동유럽과 러시아로 퍼지면서 이곳에 관심을 갖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할 수요를 감안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려인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강연도 열린다. 고려인센터에서 주관하는 러시아어 강좌는 16일부터 시작해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광주에 대한 호의와 호기심으로 가득찬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겨울도 춥지만 우즈베키스탄보다는 훨씬 덜해요.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포근하게 언어를 배우는 광주시민들께 러시아어와 우즈베키스탄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드려야죠. 제가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한국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문의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062-961-1925.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순천 출신 인요한씨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 선임

순천 출신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15일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인 소장과 호사카 교수 등 5명을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요한 소장은 순천에서 태어나 1987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2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등 항일운동을 하고 한



남대를 설립해 국권회복과 교육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도쿄대 재학시절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 한일 근현대사 공부를 시작했고 2000년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



### 대학생이 만든 패션쇼 눈에 띄네

####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왕 선발대회' 성황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롯데백화점 '패션왕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4일 9층 영패션 전문관에서 대학생 마케터들이 직접 기획한 '패션왕 선발대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 측에서 선발한 대학생 마케터들이 아이디어 선정, 기획,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졌다. 자칫 식상할

수 있는 패션쇼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이 직접 패션쇼에 참가했고 경품도 상품권이나 생필품에서 벗어나 과자나 컴퓨터 등이 증정됐다.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생이나 도심에서 야의 예선전과 이벤트가 열렸던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박양군 목포대 교수 식품공학과교수협의회회장 선임

박양군 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최근 (사)식품공학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사)전국식품공학과교수협의회는 4년제 대학교 50여 개 식품공학과 소속의 교수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현재 학부학생들의 제품개발경진대회, 식품기사시험 제도개선, 교과과정개선 및 교재편찬 등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과학회 및 식품영양과학회의 협조를 받아 상승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 교수는 "식품품질관리학 교재편찬, 국가직무능력기준과 식품기사시험 제도개선,



식품공학과페스티벌, 식품산업발전 정책포럼 등 다양한 사업과 대외홍보활동 등으로 식품공학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9년부터 목포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는 RIC식품센터 소장, 학교기업 바이오플러스 사업단장, 식약청 식품심의위원, 전남농식품산업의회 위원, 전남생물진흥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목포대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하축

▲김내환·이정애씨 장남 성현(나로도 청소년수련장)군 운영경·서달성씨 삼녀 주원(광주일보 총무부)양=21일(토) 오후 1시 50분 순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 홀 061-751-9500.

▲서대진(광주일보 봉선지국장)·박정숙씨 차남 승균군 김종규·인은숙씨 장녀 지연양=22일(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읍암면 아르텔웨딩컨벤션 그레이스홀. 전세버스 예식 당일 오전 8시 20분 봉선동 보석사우나 앞.

### 동창회

▲조선대 전기공학과 총동문회(회장 강원진)양=20일(금) 오후 6시 30분 무등산관 광호텔 대연회장 010-3627-3716.

### 중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 2015년도 정기총회=21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 향교 2층 대회의실 062-228-3368.

▲진주 정씨 진양군총장공파대총회(회장 정한기)=21일(토) 오전 10시 30분 합평군 월야면 진주 정씨 돈목회관.

### 향우회

▲재광 매산 정기모임=19일(목) 오후 7시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 2층 바르세.

### 알림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애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

스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애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모집

▲각문화회관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디자이너 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

인습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해남군협의회 기간제 근로자=민주평화통일정책위원회의 해남군협의회 행정실장 모집인원 행정실장 1명 모집 8월까지 010-3632-8575 061-534-4117.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장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남구 방림1동 새마을협의회=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p><b>101호 故安규남(여/87세)</b></p> <p>子/子婦 : 안재환/조희재, 안진환/이승주          女/婿 : 안태영/박주원 未亡人 : 이경자          •발 인 : 3월 17일          •장 지 : 담양 천주교 묘역 •연락처 : 227-4385</p>	<p><b>102호 故이철용(남/75세)</b></p> <p>子/子婦 : 이경민/조영선, 이경호/양미영          女/婿 : 이현진/송철진 未亡人 : 이영란          •발 인 : 3월 17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p>
<p><b>301호 故부종민(남/80세)</b></p> <p>子/子婦 : 부정우/최정림, 부정중/이영란, 부관후/김선희          女/婿 : 부연영/김현중 未亡人 : 나점순          •발 인 : 3월 17일          •장 지 : 남평읍 선영 •연락처 : 227-4382</p>	<p><b>401호 故이신래(여/95세)</b></p> <p>子/子婦 : 김원호/이경애          女/婿 : 김문래/최용근, 김영호/김용환          孫 : 김영경, 김유진, 김혜진, 김희연          •발 인 : 3월 17일          •장 지 : 명림묘역 •연락처 : 227-4383</p>
<p><b>孝  金호장례식장  弔</b></p> <p>마음까지 편안함          http://www.mykumho.com</p>	
<p><b>문의 (062)227-4000</b></p>	